

'시민과의 약속'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전주시, 4개 분야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 총사업비 8조 8667억원 규모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탄소·수소·드론 등 3대 미래산업 육성,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도시·경제·문화·복지의 4개 분야 아래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8667억원 규모로, 재원별로는 △국비 5조 1124억 원 △도비 3418억 원 △시비 2조 3349억 원 △민간투자 등 기타 1조1788억 원이다.

이중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민선 8기 시장 임기 내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397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시비 외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하고, 전북도와의 협력 강화 및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89개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시 분야에는 주민 주도의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원주·전주 통합 추진'과 과감한 민자 유치로 MICE시설과 호텔 등 체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등 24개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개발과 원주·전주 통합, 탄소·수소·드론 등 3대 미래산업 육성을 비롯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사진은 브리핑 모습.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의 핵심이 될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과 전주의 미래를 이끌 탄소소재와 수소생태계, 드론산업이 중심이 된 '3대 미래산업 육성' 등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 분야의 경우 후백제에서 조선 왕조에 이르는 역사문화 자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하고 산업과 연계하는 '왕의 공원 프로젝트', 전주 관광의 외연을 외곽지역까지 확장하는 '호남 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 전주천과

삼천변을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전주천·삼천 일대 통합문화 공간 조성' 등 20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들의 당연한 자립을 돕는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전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높이터를 만드는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 등 보편복

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5개 공약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이행, 관련 법규 정비 등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고 시민 공약평가단 회의 시 평가단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공약사업안에 반영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민선8기 전주 공약은 우법기 전주시장이 기재부와 광주 부시장, 전라북도 부지사 등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하고, 전주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 직후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공약사업안을 전주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소관 부서의 검토 및 시장 주재 보고회를 통해 공약사업을 구체화한 후 지난 9월 시민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우법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시민들께 약속 드렸던 민선8기 공약이 확정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과 약속했던 민선8기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주의 큰 꿈을 꾸고 실행에 옮겨 전주시의 대변역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담당하게 갈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 공사 현장 화재 주의 당부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불티 화재 주의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 현장은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물이 다량 적재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용접·용단 등 작업으로 인한 불티로 화재의 위험이 큰 반면 공사 현장에는 소화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의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화재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용접·용단 작업 시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폭발 위험 있는 가연성 물질 취급 금지, 용접 방화포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공사 현장은 작은 불티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용접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임시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수능일 교통약자 수험생 이동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수능시험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을 치르는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할 14일 밝혔다.

공단은 교통약자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자녀로 둔 교통약자를 대상

로 전주 시내권에 한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 수험생과 보호자는 전화(063-271-2727)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교통약

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용의 교통약자지원부장은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고사장에 도착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외관 도색, 사다리보강, 벽보판 지지대 추가설치, 메인보드 교체'를 진행하며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14일 옥외광고물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을 오는 16일부터 1달간 진

행 계획을 알렸다.

특히 공단은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등 옥외광고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현수막 게시대 171개와 벽보판 40개, 옥외 현수막 게시대 2개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광고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병무청, 17일 수능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를 알렸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오는 17일(대학수학능력시험) 전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 큰꿈, 시민 제안 공모'

시, 25일까지 정책 제안 발굴 위해 진행

전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 발전에 관심있는 자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전주 큰꿈, 시민 제안 공모'이다.

시는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을 위한 정책,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등 4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실용성 등을 평가한 뒤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20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100만원) 등 소정의 상금을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획득한 것이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며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다양한 우수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현안 해결 및 시청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